



2014년도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신청서 〈작성요령〉

[[토토]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(기획형)]

▶ 신청사업유형	☞ ‘토토’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(기획형)
▶ 신청사업명	☞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
▶ 신청단체명 (신청자명)	☞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주체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 ○ 단체일 경우 : 단체명(대표자명) ○ 개인일 경우 : 개인 성명
▶ 심의희망분야	☞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심의희망분야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 ○ 예: 문학

☞ 작성시 유의사항

- 지원신청서는 한글(HWP), MS-word 파일로 작성, 최대 A4 20매 이내로 작성
-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휴먼명조 11포인트, 줄간격 160으로 작성
-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삽입해주세요(이미지 파일크기 조정 무료 프로그램 사용)
- 지원신청서 상에 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’ 라고 표시된 내용은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.
- 기본 양식(표)를 준수하되,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(표)를 변경하여 작성하십시오.
- 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등록 시 첨부파일 이름은 ‘2014년_아르코지원사업명(예사: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)_신청자명’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십시오.

A. 사업계획서

1

참가 동기 및 사업 목적

☐ 참가 동기

○

☞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, 추진배경, 기획의도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.

☐ 사업 목적

○

☞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.

☐ 레지던스 기간 동안의 활동계획

○

☞ 레지던스 기간 동안의 창작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.

☐ 레지던스 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작품창작 활동 계획

○

☞ 레지던스 프로그램 종료 후 레지던스 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작품 활동 계획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.

☐ 영어 또는 현지어 구사 능력

○

☞ 신청자의 영어 또는 현지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하여 기재해 주십시오.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에 이전에 참가하신 경험이나 해외에 체류하며 창작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.

B. 사업 성과

1

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

☐ 기대되는 사업성과

○

☞ 신청사업의 실현 시 작가로서의 성장이나 차기 작품 제작 등 기대되는 사업성과(계량, 비계량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☐ 기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

○

☞ 신청사업의 실현시 개인적 차원의 사업성과 이외에 기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(예: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후속 국제교류사업 연계 등)

C. 참고자료

1

최근 2년간 신청인(단체)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증빙자료

□ 신청자(단체)의 홈페이지, 블로그 등 작품 활동을 알 수 있는 인터넷 경로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.

※ 위 작가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 활동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별도 작품 활동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□ 위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 중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, 신청자가 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성과 자료(언론, 전문지 보도, 사진자료 등)가 있다면 이 지면에 편집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.

○ 프로그램, 카탈로그, 책자 등 홍보 인쇄물을 제출하시고 싶으신 분은 별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

※ 언론보도 내용

- 단순 행사 일정 소개 기사는 제외
- 신청자의 작품활동에 대한 중점 보도한 다룬 언론(신문, TV 등)자료나 전문지의 리뷰 첨부 (언론사명, 기사 게재일 등 기재)
- 첨부수량 : 최대 3건 이내

<예시> < 2012. 6. 30 부산일보 >

“범국민적 ‘예술나무 심기’ 운동 펼칠 것”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
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(88) 위원장은 ‘예술나무 심기’ 등 7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.

권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“친진국에서는 총리가 예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연설하는 등 예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을 꾀하고 있다”며 “한국은 세계에서 높은 경제 수준에 이르렀지만,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”이라고 밝혔다.

권 위원장은 이어 “2004년 5천300억 원이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이 해마다



약 250억 원씩 감소해 절반 수준인 2천 600억 원으로 줄었다”며 “이대로 가면 기금이 10년 안에 바닥날 상황이라서 기부 활성화는 예술위의 절박한 자구책이기도 하다”고 말했다.

권 위원장은 “문화예술은 우리가 살고 가꾸어야 할 나무와 같아, 범국민적

‘예술나무 심기’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”며 “기업이나 일반인의 소액 기부확산을 위해 1인(人) 1예(藝), 1사(社) 1예(藝) 운동을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
권 위원장은 “기존에는 새 건물을 지을 때 미술 작품을 무조건 설치해야 했으나, 그 대신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해도 되도록 지난해 말 법 개정이 이뤄졌다”며 “기업들이 기금 기부를 통한 예술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문화예술위는 이외에 문화바우처 확대, 차세대 예술인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대 및 올해의 신진예술가상 신설, 대학로 융복합예술장작거점 조성, 지역고유문화 브랜드 발굴 등을 추진한다.

김효일 선임기자 tkim@